

권두인터뷰

‘녹색의 전화’개설

박영숙

주부들이 환경보호의 파수꾼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구 하나. 우리의 생명도 하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굴뚝 그리고 대량의 세제 사용 등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생태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이것은 마침내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지만 이런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90년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된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를 만나 그의 환경보호에 대한 소신과 대책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3월 지자체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들의 정치참여 문제도 함께 들어본다.

공해 피해자들의 제보받기 위해 '녹색의 전화'개설

● 우선 '올해의 환경인'으로 뽑힌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작년에는 막강한 재력의 기업들과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했다시피 한 행정부에 맞서 피해주민들의 편에 서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일이 벅차고 힘들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런 영예를 안고보니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군요.

정부는 아직도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91년의 환경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5%밖에 늘어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지요.

물론 정부의 환경보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 4월에 국민환경선언이 제정될 예정이고, 8조원이 투입될 환경보존계획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공해·생태계파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터뷰어 □이기유/사진 □곽성걸

어찌되었건 이번 일은 더 큰 일을 하라는 여러분의 체적질로 알고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갖게 하는군요.

● 작년에는 '녹색의 전화'를 만드셨는데, 그 설립취지와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 YWCA에 있을 때부터 인구·공해·생태파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계에 입문하고 원내에서 활동하면서, 특히 보사분과의 일을 맡으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게 되었지요. 이런 가운데 작년 3당 통합 등 사태정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회활동에 주력하게 되고 그동안 환경보호 문제해결에 대한 미진함을 느끼고 작년 8월 28일에 '녹색의 전화'를 설립했습니다. 이 녹색의 전화의 설립취지는 피해자들의 상담전화를 통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통해 실태를 가늠하는 한편 정부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즉각적 시정에 노력하게 됩니다. 녹색의 전화가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약 150여건의 상담·고발·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제보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환경보호운동에 나설 생각입니다.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것이 환경오염 막는 길

●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부는 아직도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91년의 환경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5% 깎인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지요. 물론 정부의 환경보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 4월에 국민환경선언이 제정될 예정이고, 8조원이 투입될 환경보존계획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공해·생태계파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언론들도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을테니까요.

● 환경보호에 있어서 여성들, 특히 주부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얼마전까지는 공해대책이었지만 지금은 예방적 의미의 적극적 환경보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게다가 다른 문제들과는 달리 환경파괴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의 주체인 가정주부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우선 우리 주부들은 요즘 세제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정 쓰레기의 폐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물론이구요. 한마디로 너무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가정에서의 소비를 줄이는 것 뿐아니라 폐품의 재활용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품의 재활용은 소비축소와 환경보호 모두에 큰 뜻이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뒤에 소비자·정부·기업, 3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생태계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성들의 의회진출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이제 환경문제에서 정치쪽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올 3월 지자제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0여년만에 맞는 지자제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의원들이 탄생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의 대거 지방의회진출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자유경쟁으로



폐품의 재활용은 소비축소와 환경보호 모두에 큰 뜻이 있다고 말하는 박영숙부총재.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부총재의 생각이다.

여성들이 남성후보를 이겨내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들이 승리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현존하는 남성정치인들처럼 정치를 한다면 여성의 대거 의회진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여성의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뭘니까. 또 여성들의 활발한 정계진출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요.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의 정치풍토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정치입문을 제도적으로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선택된 몇몇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하더라도 여성의 대변자이기보다는 당리당략에 급급한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여성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 것에도 원인이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원만하게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비례제·정당추천에 있어서의 여성후보 쿼터제, 그리고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당선할당제 등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로 볼 때는 비례제가 가장 합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장하던 이 비례제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노르웨이·스웨덴·독일 등은 여성들의 의회진출을 돕기 위해 특혜를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특혜가 없어도 정치계에서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우리 여성들은 약자이면서 또한 이익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을 잘 짜야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정당의 정책에 일치시키기보다는 정당 그 자체에 일치 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까지 생깁니다.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터득해야겠지요.

여성들의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당분간은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여성정치인들의 뒤를 받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보다는 정책에 관심 갖는 것이 바람직

● 제도적 보완 못지않게 여성들에 대한 정치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정치와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여성교육, 그러니까 여성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길러진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작년이 경우, 여성의 정치교육에는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들어 여성학이나 여성신학 등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조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여아에 대한 정치교육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요.

— 우리 여성들은 약자이면서 또한 이익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을 잘 짜야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정당의 정책에 일치시키기보다는 정당 그 자체에 일치시키는 우를



박종환 (작업선)

범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까지 생깁니다.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터득해야겠지요. 우선 물가·공해·교육·복지 등 우리 여성들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후보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선택한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그 후보가 처음에 약속한대로 공약을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차기선거의 투표로 자신이 지지를 보냈던 후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선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는 정말로 절실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치의 장(場)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젊은 여성들이 있다면 우선 올바른 시각의 정립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올바른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정계에 입문한다면 모범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그 수가 적다 하더라도 일단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교두보역할은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약자의 편에 서서 싸울터

● 제1야당의 부총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주부로서

매우 바쁘실텐데 요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쪼개 쓰시는지요.

— 보통 새벽 5시반 정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7시 당사로 출발하기 전에 이것저것 챙기고 아침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8시에 당사에 도착해서 8시반부터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요. 10시 정도면 회의가 끝나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국회의원회관이나 ‘녹색의 전화’ 사무실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시간이 지나는지 밤 10시 되기가 일쑤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아들녀석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가정적인 시간을 보내지요. 그리고 잠자리에는 12시가 넘어서야 듅니다.

● 현재 하시고 계신 일외에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저는 YWCA일을 할 때부터 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약자들에 대한 평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요. 앞보다는 뒤에 가려져 빛을 못받는 소외계층들 말입니다. 원폭피해자, 최루탄피해자 등이 바로 그들이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힘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적은 힘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뻗칠 생각입니다. 